

로스쿨과 변호사,
국민의 곁에서 선진 법률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2017.7

CONTENTS

01. 로스쿨을 도입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02. 로스쿨 도입으로 가난한 사람이 변호사나 판사, 검사가 되어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일이 더이상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요?
03. 일본과 같이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합격자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04. 로스쿨의 성과와 발전방안
05. 법학전문대학원 현황('17.7월 기준)

1. 로스쿨을 도입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입니다. ”

- ✔ 글로벌 시대에 유창한 외국어 능력과 전문성 및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 교육과정을 통해 취득한 지식과 사회적 경험 및 로스쿨에서 체계적인 이론·실무 교육과 법조윤리 교육 등을 이수한 법조인으로서 훌륭한 인격과 자질을 지닌 판사, 검사와 변호사, 이 시대 우리가 꿈꾸는 한국 법률가의 모습입니다.
- ✔ 사법시험은 법률가에게 필요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도 오로지 시험합격만으로 법률가를 선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많은 젊은 인재들이 장기간 동안 고시촌에서 시험준비에 매달리면서 사장되고 있습니다.
- ✔ 로스쿨은 한번의 시험으로 법률가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법학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제도입니다.
- ✔ 로스쿨에서 충실히 교육받아 졸업했다면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나라, 고시낭인이라는 말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회, 선진 법률시장을 이끌어 나갈 미래의 법률가를 양성하는 교육, 바로 로스쿨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 로스쿨은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점¹⁾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음

¹⁾ 국가인력의 낭비, 대학교육의 파행,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법조인 양성의 한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 로스쿨 제도로 일원화

“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이 도입되었습니다. ”

법률에 의거	✔ 2009년 변호사시험법 제정시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small>※ 변호사시험법(법률 제9747호, 2009.05.28. 제정)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small>
충분한 논의의 결과	✔ 사법시험의 폐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입니다. 1995.01_세계화추진위원회 법전문 도입 추진 ⇨ 1999.05_사법개혁 추진위원회 설치 ⇨ 1999.12_사법연수원 제도 폐지 및 한국사법대학원 설치에 관한 사법개혁안 발표 ⇨ 2003.10_사법개혁위원회 출범 ⇨ 2005.05_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마련 ⇨ 2007.07_국회 통과(제적 187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8명, 기권 20명)
국민과의 약속	✔ 지난 8년간 국민들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법을 믿었습니다. 2009년 제정된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한 법률을 신뢰하여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사법시험을 포기하고 사회에 진출하거나 아예 사법시험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로스쿨이 설치된 25개 대학교는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법과대학을 폐지했으며 25개교에 입학하는 학부생들은 법과대학이 없어 다른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시 일부라도 존치하면 로스쿨 시스템 흔들려”(2016.7.5)

20대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중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시를 일부라도 존치시킨다면 로스쿨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흔들리게 된다”며 쉽사리 예전으로 되돌린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미 로스쿨이 도입이 된 상황”이라며 “단 50명이나 100명이라도 사시 출신 법관을 배출한다면 로스쿨 자체가 비정상화가 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 “고시생 직업 선택 자유 침해 안해, 로스쿨 공익 크다”(2016.9.26)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는 사시를 준비하려고 한 사람들에게 사법시험이 존치할 것이라는 신뢰이익은 변경 또는 소멸됐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입법자는 2009년 5월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면서 2017년까지 8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며 “사법시험법의 폐지와 로스쿨의 도입을 전제로 해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법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로스쿨이 더 좋아, 사법시험 부활 안돼”(2017.4.8)

“로스쿨, 소외계층에 더 유리한 제도, 로스쿨 일원화, 사시폐지”
 지금 모든 로스쿨에서 소득 1~5분위까지, 적어도 중간소득 계층까지는 거의 100% 장학금을 받는다고 그 위 계층도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어 실제 전액 등록금 다 내고 입학하는 이들은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사법시험에서 10년간 고졸 합격자 단 3명밖에 없었다면서 그러나 로스쿨 시행 이후에는 판, 검사 된 소외계층 자녀들은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2. 로스쿨 도입으로 가난한 사람이 변호사나 판사, 검사가 되어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일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요?

“ 가난한 사람도 로스쿨을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

✔ 경제적 환경이 어렵더라도 의지와 실력만 있다면,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총 9,285명 (단위:명)

구분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합계
합격자수	1,451	1,538	1,550	1,565	1,581	1,600	9,285

※ 2012~2016년도 로스쿨 출신 검사 212명, 판사 63명 배출

✔ 現 25개 로스쿨은 등록금의 30%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100% 전액장학금을 지급받은 인원은 953명(15.8%)에 달합니다.

2016학년도 로스쿨 장학금 지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재학생 수	총 등록금	수혜 인원	장학금 수혜율	장학금 지원액	장학금 지급률
1학기	6,174	48,179	3,716	60.2%	17,658	36.7%
2학기	6,080	43,445	3,432	56.4%	16,427	37.8%
합계	12,254	91,624	7,148	58.3%	34,085	37.2%

✔ 로스쿨 총 입학정원 2,000명 중 매년 130여명(6.5%)이 특별전형으로 입학합니다.

법전문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입학전형의 구분)에 의거, 특별전형으로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대상 선발

※ 2009~2017학년도까지 특별전형 총 1,170명 입학

✔ 경제적 부담없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인하·동결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인하 전	→	인하 후
국공립	10,442	동결	10,442
사립	19,195	242만원 인하	16,775

그 밖에도 정부는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으로 '16년 37억, '17년 42억원을 국고 지원 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로스쿨 저소득층 장학금을 확대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일본과 같이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합격자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 예비시험을 도입하면 로스쿨의 도입목적은 달성할 수 없고 종래 사법시험에서 나타났던 폐해가 재현됩니다. ”

- ✔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일본의 예비시험 제도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 ✔ 예비시험제도가 도입된다면 3년 동안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로스쿨 진학을 기피하고 학원 등에서 수험 위주의 강의를 통해 사법시험때와 마찬가지로 손쉽게 변호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 ✔ 이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법률전문가의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한 로스쿨 손실과 교육의 파행을 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 ✔ 국민들의 건강을 다루는 의사나 약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의사·약사고시처럼, 변호사시험 또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정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들에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 입니다.

※ 한국 로스쿨: 인가주의방식 (총 정원 2,000명 통제, 특별전형제도, 장학금 지원 확대, 법과대학 폐지)
일본 로스쿨: 준칙주의방식 (정원 자율, 법과대학 존치, 예비시험 제도 운영)

[참고] 일본 예비시험 현황

- ✔ 2016년도 응시 및 합격자 현황 : 총 10,442명 응시, 405명 합격(합격률 3.87%)
경제적 사정으로 로스쿨에 다닐 수 없는 사회인을 위한 우회로 마련되었으나 실제로는 대학생, 로스쿨생들이 합격자의(70% 수준) 대다수 차지, 신사법시험 응시를 통한 법조인의 지름길로 전락

✔ 전년도 신사법시험 1,583명 합격, 이중 예비시험 출신 235명(14.8%)

[표1] 예비시험출신 구성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로스쿨 재학, 중퇴생	40.6%	41.9%	37.9%
대학재학생	28.8%	27.4%	29.3%

- ✔ 예비시험제도 폐해발생, 법무성·문부성·최고재판소 협의회 관련 논의
예비시험 쏠림으로 로스쿨 제도의 위기를 야기, 실제 로스쿨은 저조한 신사법시험 합격률에 지원자가 줄면서 폐교 및 모집정지 등

4. 로스쿨의 성과와 발전방안

“ 로스쿨 도입 9년동안 총 9,285명의 변호사를 배출하였고,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부전공과 사회경력을 바탕으로 기존 법조인보다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

법학교육의 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스쿨 도입으로 고시원에서 이루어지던 법학공부가 대학강의실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사법시험제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60px; margin: 0 auto;">지식습득</div> </div> <div style="font-size: 2em; color: #00a0e3;">➔</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법학전문대학원 제도</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60px; margin: 0 auto;">지식습득</div> <div style="font-size: 2em; color: #00a0e3;">+</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60px; margin: 0 auto;">상호작용을 통한 학습</div> </div> </div> </div>
타전공 학부교육의 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 학생들이 전공을 불문하고 사법시험을 공부하는 폐단이 사라졌습니다. <p style="font-size: 0.8em; color: #00a0e3;">학부성적을 로스쿨 입학전형 필수요소로 활용함에 따라 학부교육이 정상화</p>
출신대학의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스쿨 입학자의 출신대학은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대학의 2.5배로 다양해졌습니다. <p style="font-size: 0.8em; color: #00a0e3;">사법시험 합격자 출신대학 40.6개 ➔ 로스쿨 입학자 출신대학 102.4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대학 출신의 법조인이 증가하였습니다. <p style="font-size: 0.8em; color: #00a0e3;">사법시험 합격자 중 지방대학 출신 12.06% ➔ 로스쿨 입학자 중 지방대학 출신 19.68%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80명 인제 선발</p>
다양한 학위취득 출신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통신대, 독학사, 학점은행, 사이버대, 평생교육진흥원 등의 출신으로서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이 증가했습니다. <p style="font-size: 0.8em; color: #00a0e3;">사법시험 합격자 중 위의 학위를 받고 입학한 자 20명 ➔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은 57명</p>
다양한 전공의 변호사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법학 전공자가 증가하였습니다. <p style="font-size: 0.8em; color: #00a0e3;">사법시험 합격자 중 비법학 출신 18.95% ➔ 로스쿨 입학자 중 비법학 출신 56.0%, 17학년도 약 80%</p>
지역진출의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송무시장 위주로 진출하던 사법시험 합격자들과는 다르게, 로스쿨 출신들은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p style="font-size: 0.8em; color: #00a0e3;">사법시험 출신자의 기업, 공공기관 진출 19.5% ➔ 로스쿨 졸업자의 기업, 공공기관 진출 29.5%</p>

“ 로스쿨의 미래,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과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방통대 로스쿨을 통한 문호 확대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스쿨 교육 정상화,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충실히 로스쿨 교육을 이수, 평가받은 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응시자 대비 60%수준) <p style="font-size: 0.8em; color: #00a0e3;">자격시험이 아닌 정원제 합격 방식으로 운영, 매년 합격률 하락</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font-size: 0.8em;"> <thead> <tr> <th>구분</th> <th>제1회</th> <th>제2회</th> <th>제3회</th> <th>제4회</th> <th>제5회</th> <th>제6회</th> </tr> </thead> <tbody> <tr> <td>합격자 (합격률)</td> <td>1,451명 (87.15%)</td> <td>1,538명 (75.17%)</td> <td>1,550명 (67.63%)</td> <td>1,565명 (61.11%)</td> <td>1,581명 (55.20%)</td> <td>1,600명 (51.45%)</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낮은 변시험합격률은 로스쿨 교육 운영 파행야기, 사법시험 폐단을 재현 	구분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합격자 (합격률)	1,451명 (87.15%)	1,538명 (75.17%)	1,550명 (67.63%)	1,565명 (61.11%)	1,581명 (55.20%)	1,600명 (51.45%)
구분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합격자 (합격률)	1,451명 (87.15%)	1,538명 (75.17%)	1,550명 (67.63%)	1,565명 (61.11%)	1,581명 (55.20%)	1,600명 (51.45%)									
변호사시험 시험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호사시험 시험장소를 전국 5대권역으로 추가 확대 <p style="font-size: 0.8em; color: #00a0e3;">매년 응시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권역 학생들은 시험준비에 경제적, 시간적 부담 가중 (1인당 150만원 부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font-size: 0.8em;"> <thead> <tr> <th>구분</th> <th>제1회</th> <th>제2회</th> <th>제3회</th> <th>제4회</th> <th>제5회</th> <th>제6회</th> </tr> </thead> <tbody> <tr> <td>응시자(명)</td> <td>1,665</td> <td>2,046</td> <td>2,292</td> <td>2,561</td> <td>2,864</td> <td>3,11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現 서울, 대전권역 2곳 ➔ 경북, 부산, 전북, 전남, 제주 확대필요 <p style="font-size: 0.8em; color: #00a0e3;">[참고] 사법시험(1차) 5개 지역, 법학적성시험 9개 지역, 의사고시 5개 지역 시험 실시</p>	구분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응시자(명)	1,665	2,046	2,292	2,561	2,864	3,110
구분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응시자(명)	1,665	2,046	2,292	2,561	2,864	3,110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대신 학점이수제를 도입, 특성화 전문화 기여 <p style="font-size: 0.8em; color: #00a0e3;">전문법률과목, 특성화 과정 파행운영, 일부 선택과목 응시자 집중 등 문제발생 예) 국제거래법 1,240명(43.3%), 환경법 795명(28%)..... 조세법 57명(2%)</p>														

로스쿨 정부예산 지원 확대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든지 법조인이 되는데 장애가 없도록 취약계층에게 장학금 국고 지원 <p style="font-size: 0.8em; color: #00a0e3;">기초수급자, 차상위, 소득분위 2분위 이하인 자의 60% 전액장학금 지원 로스쿨 평균등록금 14,238천원 × 대상자 646명 = 92억원 ※ 문재인 대통령 로스쿨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확대 공약</p>
리걸클리닉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습과정을 통해 로스쿨생에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p style="font-size: 0.8em; color: #00a0e3;">무로법률상담을 통한 사회적 약자 및 지역사회 기여확대, 실제사건을 다루는 법률상담에 참여함으로써 법조실무 능력을 증진</p>

야간, 온라인 로스쿨을 통한 문호 확대

방통대 로스쿨 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설치하여 문호를 확대 <p style="font-size: 0.8em; color: #00a0e3;">로스쿨 진학이 어려운 직장인, 유사 법조직역 종사자, 경력 단절 여성 및 가사노동 담당자 등을 위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스쿨 총정원 외 50~100명 수준 정원제 방식 제안
-------------------	---

5. [표] 법학전문대학원 현황('17.7월 기준)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17.7월 기준)

NO	학교명	원장	정원	특성화분야	비고
1	강원대학교	홍석모	40	환경법	
2	건국대학교	권종호	40	부동산관련법	
3	경북대학교	권오걸	120	IT법	
4	경희대학교	정형근	60	글로벌 기업법무	감사
5	고려대학교	명순구	120	GLP(국제법무)	
6	동아대학교	이종근	80	국제상거래법	이사
7	부산대학교	차정인	120	금융·해운통상	감사
8	서강대학교	장덕조	40	기업법(금융법)	이사
9	서울대학교	조홍식	150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	이사
10	서울시립대학교	정병호	50	조세법	이사
11	성균관대학교	최봉철	120	기업법무	
12	아주대학교	이준섭	50	중소기업법무	
13	연세대학교	김정오	120	공공거버넌스와 법,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 의료·과학기술과 법	이사
14	영남대학교	김창희	70	공익·인권법	
15	원광대학교	이희성	60	의생명과학법	
16	이화여자대학교	강동범	100	생명의료법, 젠더법	
17	인하대학교	김인재	50	물류법, 지적재산권	부이사장
18	전남대학교	송오식	120	공익인권법	
19	전북대학교	김동근	80	동북아법	이사
20	제주대학교	김현수	40	국제법무	이사
21	중앙대학교	이종영	50	문화법	
22	충남대학교	명재진	100	지적재산권	
23	충북대학교	이재목	70	과학기술법	
24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완진	50	국제지역법조인양성	
25	한양대학교	이형규	100	국제소송법무, 지식·문화산업법무, 공익·소수자인권법무	이사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소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조정을 통하여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률가 양성제도의 발전을 모색하여 우수한 법률가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로 구성된 공익단체로 2008년 5월 28일 설립되었다.

〈주요사업〉

1.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및 운영에 관한 학술연구
2. 법학적성시험의 주관·시행 및 제도·운영에 관한 연구
3. 변호사자격시험제도에 관한 학술연구 지원사업
4. 국내·외 법학전문대학원 정보교환 및 상호 협력증진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주소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 info.leet.or.kr
- 2)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 www.leet.or.kr

로스쿨과 변호사,
국민의 곁에서 선진 법률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2017.7